



사건기자의 짝짓

“백구야, 짝 잡아”

그놈, 참 시원하겠습니까. 개팔자 상팔자라고 하는 말, 이럴 때도 통하는 말일까요.
나주를 지나면서 주인과 함께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 개를 만났습니다. 입이 딱 벌어지더군요. 주인 등에 발을 올리고 가는 품이 자연스럽게까지 합니다. 많이 타본 솜씨입니다. 주인도 어깨를 푹푹이 퍼 바람을 막아주는 것 같았습니다. 헬멧도 쓰지 않은 개가 행여 다칠까 천천히 운전을 하더군요.
‘복날’이 들어 있는 요즘 주인 눈치보고, 이상한 사람들과 피해다니는 개들에 비하면 주인 잘 만난 것은 분명합니다.
얼마나 지극히 주인의 손과 발이 되어 왔으면 이런 대우를 받을까요.
애완견 전용 카페와 호텔을 다니고

전용 음식을 먹으며 사람들보다 더 대접받는 일부 호화 애완동물만큼은 아니더라도 이 정도면 개팔자 부러울 것 없을 것 같습니다.
전남도 농촌 지역에 가면 젊은 사람들이 찾아가 무척 힘듭니다. 도시로 떠나 버린 탓에 농촌 지역을 지키는 사람들은 나이가 든 할아버지, 할머니들 뿐입니다.
외롭게 사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친구이자 자식이 되어주는 것이 개들 아닙니까. 그래서 가족처럼 끄떡이 사랑받는 것이겠지요.
그런데 헬멧 안 쓴 강아지는 경찰의 단속 대상이 아닐까요. 또 동물애호가들은 아찔하다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위지랑기자 jrwi@kwangju.co.kr

I love MY student



박지예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나는 매년 30명이 넘는 아들, 딸들을 가슴으로 키워내야 하는 교직의 길을 4년째 가고 있다. 올해도 역시 나만큼이나 덩치가 큰 16명의 아들과 막 사춘기에 접어들어 새침데기 같은 14명의 딸들을 어미 낱이 부화를 위해 알을 품듯 열과 성을 다해 마음으로 품어가고 있다.
교직에 첫 발을 내딛었던 4년 전, 지금의 6학년 아

침은 매우 높은 편이었다.
그 아이와 이야기를 많이 나누었다. 솔직히 처음 몇 번은 벽과 대화하는 느낌이었다.
나에게 전혀 마음의 문을 열지 않는 그 아이에게 나는 계속해서 “다른 친구들이 너를 어떻게 생각하든지, 또 다른 선생님들이 너에 대해 어떻게 말씀하시든지 나는 그것과 상관없이 너를 믿고 있다.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1년 동안 잘 키워 중학교에 잘 입학시킬 거야. 우리 서로 잘해보자”며 내 믿음을 계속 표현해 주었다. 그 아이는 나의 이런 표현들을 어색해했다.
그러나 계속되는 관심, 변함없는 나의 믿음을 그 아이도 알아주는 듯 행동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숙제를 해오지 않아 늘 남아서 하던 그 아이가 이제는 숙제도 잘해오며 수업시간 학습 태도도 몰라보게 좋아졌다. 아이가 달라지는 모습을 보며 우리 반 아이들의 태도도 달라져 갔다.
얼마 전 열린 6학년 반 대항 축구 시합을 준비하며

너희가 있어서 행복하단다

이들이 3학년이었을 때 초미의 열정으로 내 평생 잊지 못할 1년을 함께 했던 아이들이었기에 올해는 주저 없이 6학년을 맡겠다고 했다.
동학년 선생님들과 모여 반 아이들을 정하는 날, 묘한 설레임과 떨림으로 4개의 봉투들 중 마지막으로 남은 1개의 봉투를 선택했다. 봉투 안에 들어 있는 30명의 이름을 훑어보는 순간 나는 한 아이의 이름이 눈에 띄었다.
그 아이는 부모님의 사정으로 인해 할머니와 함께 살고 있다. 어려운 가정환경 탓에 정서가 매우 불안했고 이야기를 나눌 때 눈맞춤(eye-contact)도 되지 않았고 장난도 매우 심하여 늘 반에서 일어나는 다름의 원인이 되는 아이다. 친구들에게서 따돌림을 당하여 마음의 상처를 깊게 입고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갔다가 작년 2학기에 다시 우리 학교로 전학을 온 터였다.
새 학기가 시작되면서 하나, 둘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남학생들은 이 아이를 은근히 무시하며 함부로 대하는 일들이 생겨났고 자리를 배정하는 과정에서 대부분의 여학생들은 짜증을 하는 것을 꺼려하며 인상을 찌푸리기 일쑤였다. 우리 반 아이들의 반

포지션을 정하면서 우리 반 남학생들은 축구 연습을 할 때 공격수들이 찬 공들을 몸을 날려 잡아내는 그 아이의 모습을 칭찬하며 이 아이를 골키퍼로 놓아주겠다고 했다. 그 아이가 열심히 뛰어진 탓에 팀 전력상 다른 반에 비해 약했던 우리 반은 준수수까지 할 수 있었다.
최근에는 국어 시간 원소 잡이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빠르게 이해하는 주장이 담긴 글을 학습한 뒤 후속시 이처럼 제대로 이해하지 않고 편견을 가졌던 경험을 말해보라고 했더니 그 아이와 한 달간 짝을 했던 여학생이 일어나 “처음에 ○○이와 함께 앉게 되었을 때 장난도 심하고 공부도 못하며 옛날에 따돌림을 당했던 아이라 같이 앉기가 싫었는데 막상 짝공을 해보니, 재미있고 공부도 열심히 했습니다. 다른 남학생들보다 착한 아이였습니다.”라고 발표를 했다.
내가 했던 100마디의 잔소리보다 이 아이와 짝을 했던 여학생의 발표를 통해 우리 반 아이들은 더욱더 많은 것을 느끼고 깨달았으리라.
처음 마음을 문을 열고 더불어 하나가 되어가는 아이들과 함께 하는 나, 참 행복한 교사다.
<나주영성포초등학교 교사>

뉴스퀴즈

74. 해리포터 시리즈 완결편인 ‘해리 포터와 죽음의 성도’들이 지난 21일 오전 8시(한국시간) 한국을 비롯, 전세계에서 동시에 출간됐습니다. 해리 포터 시리즈는 제1권 ‘해리 포터와 마법사의 돌’부터 제6권 ‘해리 포터와 혼혈왕자’까지 무려 3억2천500만권이 팔렸습니까. 이 작가는 누구일까요?

- ① 조앤 롤링 ② 다니엘 래드클리프 ③ 엠마 왓슨 ④ 루퍼트 그린트

참여 방법

정답을 표시한 뒤 매주 일요일까지 신문을 오려 보내 주시면 2주마다 당첨자를 선정, 1위 삼상전자 고급 진공청소기 1대, 2위 무등파크호텔 숙박권 1매를 보내 드립니다. (연락전화번호 미표기시 추첨에서 제외)

보내실 곳

광주시 동구 금남로 2가 20-2번지 광주일보사 여론매체부 퀴즈담당자 앞 우편번호 501-711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7월 24일(음 6월 11일 己未)

Table with 2 columns: Animal sign (子, 丑, 寅, 卯, 辰, 巳, 午, 未, 申, 酉, 戌, 亥) and corresponding fortune text.

Go board game diagram showing a game in progress with numbered stones and a score of 140 for White.

Baduk (Go) news section titled '바둑소식' with a date '7월 24일' and a score of 8 for White.

Baduk (Go) news section titled '바둑소식' with a date '7월 24일' and a score of 8 for White.

Advertisement for '더마플라스트' (DermaPlast) skin care products.

English section titled '굿모닝 잉글리쉬 <954>' with a dialogue about 'Who's calling, please?' and a website link.

English section titled '오하오우 니혼고 <954>' with a dialogue about '後(あと)でしゅ駄目(だめ)'. Includes a website link.

English section titled '니하오 쑹구위 <144>' with a dialogue about '星期五晚上, 你有空吗?' and a website link.

English section titled '한자 이야기 <571>' with a dialogue about '國文學(국문학)' and a website link.